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
보도 일시	2022. 11. 17.(목) 06:00 < 11.17.(목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11. 16.(수)
담당 부서	전력혁신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 강감찬 (044-203-3880)
		담당자	서기관 이디도 (044-203-3885)

올 겨울철 에너지위기에 대비하여 비상한 각오로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

- 겨울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사전점검회의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**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** 주재로 금년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(2022.12.1.~2023.2.28.) 시행에 앞서 **11.17(목)** 전력유관기관과 함께 **안정적인 겨울철 전력수급을 위한 준비상황 사전점검회의**를 개최하였다.

《 회의 개요 》

- 일 시 : '22. 11. 17.(목) 10:30
- 장 소 : 한국전력 전력기반센터 (서울 영등포구 소재)
- 참석자 : (산업부) 전력혁신정책관, 전력산업정책과장 등
  (유관기관) 한전, 전력거래소, 발전5사, 가스공사, 에너지공단, 전기안전공사 등
- 유관기관별 주요 발표내용

  * (전력거래소)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, (한전) 송배전설비 안전관리 방안 (발전5사) 발전설비 안정운영 계획, (가스공사) 천연가스 안정공급 전망 및 계획 (전안공) 겨울철 전력수급 지원대책, (에공단) 겨울철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대책

□ **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**은 금년 **겨울철 예비력 전망**은 **올 여름철에 비해 안정적**이라면서도, 러-우 전쟁이 촉발한 **글로벌 에너지위기**가 우리 **무역적자 확대,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파급**되는 등 **그 어느때보다도 엄중한 상황**이라는 점을 지적하고,

○ 이로 인한 LNG·유연탄 등 **연료수급의 불확실성**, **기후변화**로 인한 이상 혹한·폭설 발생 가능성 등이 상존하는 바, 올 **겨울철 전력수급 여건 역시 도전적인 상황**이라고 진단하였다.

□ 이에, **이 정책관**은 **원전·석탄발전 등 기저발전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전용 LNG를 절감해 나가야할 것**이라고 강조하고 **글로벌 연료수급, 불시고장·정비지연 등 리스크를 치밀하게 관리**하여 안정적인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발전사에 당부하였다.

○ 아울러, **공공기관을 중심으로** 에너지사용 실태점검 등 **철저한 수요관리**를 해나가는 동시에 **민간에도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**이라고 강조하였다.

○ 또한 갑작스런 혹한이 발생하거나, 폭설로 태양광발전이 불가할 경우 **전력수급 비상상황**이 전개될 수 있는 바, 이에 대비해 **추가예비자원을 철저히 점검**하고 **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**할 것을 주문하였다.

□ 전력유관기관들은 올 겨울철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대응하여 **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이 어느 때보다 중요**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, 비상한 각오로 올 겨울철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다짐하였다.

○ 특히 **한전, 가스공사** 등 유관기관은 LNG 구매 및 전력구매비용 절감 차원에서 **올 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**하였으며, 이 정책관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하였다.

□ 정부는 **11월 중 「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」을 확정하여 발표**할 예정이며, 오는 **12.1일부터 내년 2.28일까지**를 **전력수급대책기간**으로 정하고 **겨울철 전력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**해나갈 계획이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